



제55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8월 9일)

중앙아시아의 불교미술

김혜원 | 307호 중앙아시아실 | 18:00~18:30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주변 문화권에서 발생한 불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교, 이슬람교와 같은 여러 종교가 유입되었다. 이 중에서 기원후 10세기경까지 가장 영향력 있던 종교는 불교로, 이와 관련된 유적이 중앙아시아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서투르키스탄 지역에는 옛 박트리아 지역에 속하는 우즈베키스탄 남부 테르메즈 지역을 중심으로 기원후 1~4세기 조성된 사원지와 더불어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지에 6~9세기 사원지가 남아 있다. 동투르키스탄 지역에는 호탄, 쿠차, 투루판 등 서역북도와 서역남도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3~13세기에 조성된 사원지가 다수 남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동투르키스탄, 즉 현재의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에 해당하는 지역의 불교 유적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이 중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호탄과 투루판 지역에서 출토된 벽화와 소조상이다. 서역남도에 위치한 호탄은 일찍이 불교 중심지로 자리 잡은 곳으로, 중국 승려들이 호탄 지역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경전의 범본梵本을 구하곤 했던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예를 들어 260년 중국 위魏의 주사행朱士行이 이곳에서 『도행경道行經』 정본正本을 구했고, 5세기 한역된 『화엄경華嚴經』 60권본 역시 이곳에서 가져온 범본을 바탕으로 했다. 또한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646), 『우전국사于闐國史』(1183)에 전하는 우전국 건국 설화에는 비사문천毘沙門天이 왕실의 조신祖神 또는 수호신으로 등장하는 점도 주목된다. 호탄의 대표 불교 유적으로는 라와크, 단단윌리크, 발라와스트, 도모코 사원지 등이 있다.

투루판에서는 이미 3세기에 불교 신도의 존재가 확인된다. 토유크 석굴사원에서 발견된 원강元康2년(292) 『제불요집경諸佛要集經』은 연대가 확인되는 이 지역 출토 최고最古의 사경寫經이다. 『위서魏書』에는 “세속의 사람들은 천신天神을 모시고, 불법佛法도 함께 믿는다”라는 기록이 전한다. 이 지역의 왕들도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씨고창국의 왕 국문태麴文泰가 인도로 향한 길에 이곳에 들른 현장玄奘(602~664)에게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 강의를 듣고 극진히 대접한 일화가 특히 유명하다. 이 지역의 주요 불교 유적으로는 베제클리크, 토유크, 생김-아기즈 석굴사원, 고하고성交河故城과 교창고성高昌故城의 불교 사원지가 있다.



그림 1. 투루판 베제클리크 석굴사원 전경



그림 2. 호탄 라와크 사원지의 스투파

특별전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11)

- 예술가와 단추

백승미 | 특별전시실 | 18:00~18:30

예술가들의 단추에 대한 관심은 그 역사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루이 16세의 통치가 끝날 무렵인 18세기 말에는 이른바 ‘그림’ 단추가 유행하면서 세밀화가 등 여러 회화 작가들의 작품이 단추에 표현되었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단추 제작은 주로 전문가의 손에 맡겨졌지만, 이 작은 단추에 관심을 갖는 많은 예술가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회화 작가, 조각가, 도예가, 장식예술가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형태를 창조하는 장식예술가들은 작품을 만들 때 필요한 ‘소재’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과 원리를 적용하여 새로운 단추를 만들었습니다. 상아, 자개, 나무, 뿔, 금속, 세라믹 등 뛰어난 소재 가공 기술은 디자이너들과의 협업 때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엘자 스키아파렐리, 디올, 샤넬 등 이름난 디자이너들도 이러한 장식 예술가들의 단추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장식적이면서도 기능적인 오브제인 단추는 20세기 초부터 수많은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의 중요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이미 장신구 제작에서부터 벨트 버클, 케이프 망토 고정 핀, 모자 핀, 넥타이 핀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디자인을 통해 실력을 다져온 이들 예술가들에게 단추는 또 다른 작품의 영역이었던 셈입니다. 1910년대 초에는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참여로 새로운 단추 디자인이 탄생했으며, 디자이너와 예술가의 협업 속에 단추는 하나의 예술품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추는 예술가의 독특한 스타일을 표출시키고, 그것을 디자이너의 스타일과 완벽하게 조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재가 되었습니다. 단추에 표현된 디자인은 디자이너와 예술가의 예술적 유사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들의 끈끈한 우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교감은 서로의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추 제작에 참여한 장식예술가, 도예가, 예술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단추는 한 시대의 스타일과 예술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림1. <단추>, 알베르토 자 그림2. <단추>, 소니아 들로네, 코메티, 1939년, 청동 ©Les Arts Décoratifs, Paris 1925년경, 나무 상감 ©Les Arts Décoratifs, Paris

제55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8월 9일)

우리 옛 그림 속 새

권혜은 | 202호 화조영모화실 | 19:00~19:30

우리의 옛 그림의 장르 중 새를 주제로 한 그림은 청동기 시대부터 등장하는데, 주로 길상吉祥의 의미의 도형이나 문양으로 묘사되었다. 이후 고려시대 문인이규보李奎報(1168~1241)가 “새와 동물 그림을 보고 즐기기 위해 좌우에 둔다”라는 시를 노래하였듯이, 새를 그린 그림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대상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에는 ‘대나무와 새’, 혹은 ‘줄고 있는 새’와 같이 자연과 벗하며 자신의 성정을 맑게 하고 덕을 쌓고자 했던 선비들이 즐긴 새 그림이 유행하였다. 또한 화사한 꽃과 다채로운 새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전통도 함께 확립되었다. 화사한 채색을 가한 화조영모화들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생활 속 장식 그림으로 그 수요가 서민층까지 확대되면서 민간에서도 널리 성행하였다.

조선 말기 화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이른바 이색화풍이 유행하면서 과감한 화풍을 구사하는 작품들이 등장한다. 홍세섭洪世燮(1832~1884)은 그 대표적인 화가로, 특히 동물 그림을 잘 그리기로 유명한 선비화가였다. 그의 대표작인 <새>는 여덟 폭의 화면에 계절감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새들을 주제로 한 작품이면서도 화면에 대상 표현의 새로운 해석과 참신함이 가득하다. 특히 네 번째 청둥오리는 그의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장면으로, 두 마리 오리가 헤엄치며 노는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 본 부감법俯瞰法으로 그려낸 점이 이채롭다. 또한 능숙하게 먹의 다루어 속도감 있는 물살로 화면을 가득 채우는 등 이전에 볼 수 없는 신선하고 세련된 감각을 선보이고 있어, 조선 말 새 그림의 걸작으로 꼽힌다.



그림 1. 홍세섭洪世燮(1832~1884), <새>, 조선 19세기, 비단에 먹

제55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8월 9일)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14)

- 메카와 메디나

김승익 | 기획전시실 | 19:00~19:30

초기 이슬람 시대에 메카는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중심지라기보다는 종교의 중심지였다. 헤지라(Hegira), 즉 622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오늘날 메디나인 야트립(Yathrib)으로 ‘이주’ 하면서, 메디나가 이슬람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다. 메카는 원래 도시가 아니라, 한두 채의 사원으로 이루어진 성지였고 일 년에 한 번 정도 사람들이 축일(祝日)에 방문하는 정도였다. 메카는 향로 교역로 상에 있지 않았지만 5세기에 집권한 꾸라이시(Quraysh) 부족의 통치 하에 순례 장소로서 또 교역 도시로서 중요성이 상당히 커졌다. 꾸라이시 족은 순례지의 주요 기능과 수익을 장악하고 여러 부족과의 능숙한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대상(隊商)들을 시리아, 예멘, 이집트, 에티오피아로 안전하게 이끌었다. 보석, 향수, 식물, 가죽(의복과 양피지 용)을 주로 팔았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예언자 무함마드는 이러한 상인 부족인 꾸라이시 부족의 후손이다.

메디나로 옛 이름인 야트립은 이슬람 시대에 이르러서야 ‘예언자의 도시’로 널리 알려졌다. 여러 장인, 상인 부족들이 이 작은 오아시스 지역에 머물러 있었는데, 무함마드가 이 지역의 종교적 분란을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도시가 유명해졌다. 무함마드는 무슬림을 위해 관세 없는 시장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후 여러 세기에 걸쳐 메디나는 세련된 문화, 정상급의 음악가와 시인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갖춘 학자들을 배출한 도시가 되었다. 8~9세기의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들이 이곳에서 활동하였고 이후 수세기 동안 이어질 율법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망한 후에 그의 무덤이 있는 건물군은 기념물이자 모스크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림 1. 메카의 신성한 사원(holy mosque) 전경, 1880